

2020년 6월 25일

## HSBC,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 플러스 성장 전망

### HSBC 코리아 글로벌 경제 & 외환 세미나

HSBC는 코로나 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HSBC 전문가들은 6월 24일에 개최된 2020 글로벌 경제 · 외환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올해에는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이 연례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프레드릭 뉴먼 HSBC 아시아 경제 리서치팀 공동 총괄은 "이미 중국과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 경제 성장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아시아가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 역시 눈에 띄게 회복력이 강했고, 올해와 내년에 플러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SBC 글로벌 리서치는 한국 GDP가 올해 0.3%, 내년 2.9%, 글로벌 GDP는 올해 -4.8%, 내년 5.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먼 공동 총괄은 "글로벌 경제가 전례없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각국이 COVID 19로 인한 봉쇄정책을 완화하면서 그동안 눌러있던 소비 욕구가 단기 경기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의 예외적인 통화 확대정책도 금융시장의 경색을 막았고, 이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미국, 유럽과 아시아에서 방대한 규모로 펼쳐진 재정정책도 경기 회복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뉴먼 공동 총괄은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경기, 사회적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률이 여전히 높고, 지난 몇 달간 코로나 19로 인해 충격을 받은 소비자들이 저축을 늘리려 할 것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폴 맥켈 HSBC 글로벌 이머징 마켓 외환 리서치 총괄은 최근 미 달러 움직임에 대한 HSBC의 정확한 예측을 강조했다. 지난 2년간 시장의 컨센서스와 달리 HSBC에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라고 예측했고, 올해에도 달러가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맥켈 총괄은 "HSBC는 경기가 U자 형태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즉, 글로벌 경기 회복 전에 일정기간 불확실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따금씩 경기가 반등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V자형 회복이 기대되는 국가의 외환시장에서는 통화 가격에 경기 회복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This news release issued by  
HSBC Korea

통화(원화도 이에 해당함)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약세 현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 달러와 엔화의 경우, U자형 경기 회복이 진행되면서, 안정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맥켈 총괄은 "그러나, 경기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외환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각 국 재정 상태의 건전성이다. 통화 가치의 관점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친 회복기에 맞추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국가가 유리한 것이다. 원화의 경우, 글로벌 무역 침체에 영향을 받아 통화가치가 하락 할 수 있으나,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회복성이 강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브렉시트 완료일이 다가오고,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향후 몇 달간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정은영 HSBC 코리아 대표는 "정확한 경기 전망은 기업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욱 중요하다. HSBC는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매년 글로벌 경제·외환 전망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고객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HSBC 리서치 정보가 도움이 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문의

서현진

02-2004-0882

hyonjinsuh@kr.hsbc.com

## HSBC

HSBC는 한국에서 은행지점과 증권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홍콩상하이은행은 HSBC 그룹의 창립 멤버이며, HSBC 그룹은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64개 국가 및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HSBC 그룹의 자산은 2조 9천 1백 80억 달러로, HSBC는 세계 최대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이다.